

人  
스토리  
서른 일곱 번째  
박경년



# 강아지처럼 부드럽게

이야기·그리기: 박경년 듣고 쓰기: 이대성·이수현

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엾하게  
써기신 걸까? 원사님은 강아지를  
키우고 있었는데 금세 그 집에  
갓난 아기가 태어난 거야 강아지 힘이  
아기한테 안 좋다고 강아지를 키웠으면  
잘고 있었어. 내가 4개월 된 그  
강아지를 데려왔지. 그게 내 형  
아동이 형이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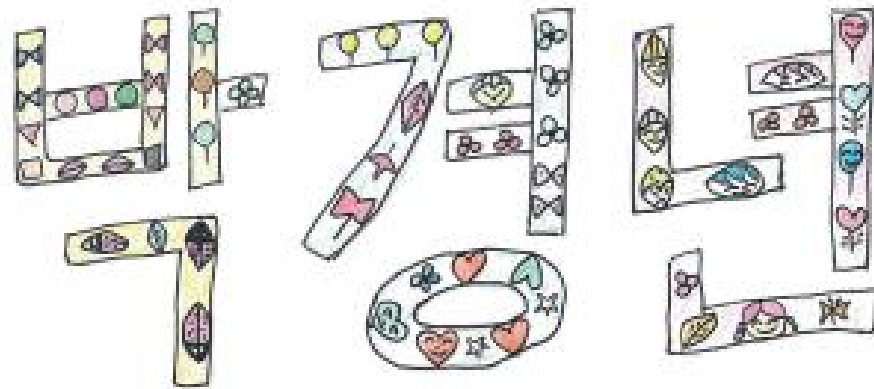


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 
천권도서관 人 스토리

인스토리 서른 일곱 번째 박경년

# 같은대처럼 부드럽게

이야기·그리기: 박경년 듣고 쓰기: 이대성·이수현



콩아, 콩아



콩아, 우리 외할머니도 혼낼 때는 억수로 무서웠다. 그래도 외할머니와 보내던 그 시절은 참 따듯했지. 주말마다 뭘 뭘이 다른 도시로 간 엄마 아빠 대신 나를 키우셨잖아~.

단팥빵, 향긋한 녹소야와 함께 그려와 사본은 어느덧 몇 공을 행한지, 장난을 개 해주는 일러스트와 장난감도, 가끔씩 뭘 먹음, 광학일 함께 밝음. 그 시절을.

어떻게, 단단하냐?

